

수저 계급론은 가짜뉴스였나?

김희삼 (광주과학기술원 교수)

《 요약 》

2015년 한국 사회에 등장한 수저계급론은 2018년 세계가치관조사에서 한국인의 성공관이 그 이전 시기와 사뭇 달라진 것에서도 드러난다. 그전과 달리 성공 요인으로 노력보다 운이나 연줄을 중시하는 생각은 청년과 그 부모 세대에서 강하게 나타났다. 그럼에도 수저계급론이 가짜뉴스라거나 미디어를 통해 부풀려진 인식의 과잉이라는 비판과 함께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의 분석을 통해 한국의 세대 간 상대적 이동성은 꾸준히 높아져 왔다는 주장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최근에 더 나은 자료와 분석 방법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1990년 이후 출생 집단에서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하락했으며, 이들 세대에서는 자녀에 대한 교육투자를 통한 경로 외에 직접적인 증여 등을 통해서도 경제력이 대물림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청년 집단을 중심으로 확산한 수저계급론이 현실을 상당 부분 반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 사회에서 '수저계급'이라는 용어는 2015년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처음 등장했다. 개인의 성공적인 인생이 전적으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운에 달려 있다는 인식을 반영한다.

국제 비교 추이에 드러난 수저계급론

세계가치관조사 자료는 나라별 16세 이상 국민의 사회이동 관련 인식의 지난 30여 년간 변화를 고찰할 기회를 준다. 관련된 설문은 성공 요인으로서 노력과 운(연줄 포함)의 상대적 중요성에 관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결국에는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와 “대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운이나 연줄이 더 중요하다.” 중 어느 쪽이 더 맞다고 생각하는지를 질문했다. 전자에 동의할수록 1에 가깝고 후자에 동의할수록 10에 가까운 10점 척도 문항이었다. 따라서 선택된 값이 클수록 노력의 힘보다 운과 연줄이 중요하다고 보는 수저계급론의 인식에 가깝다. 연줄도 가정 배경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태어난 가정 배경에 의해 결정되는 요인들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고, 노력해도 바꿀 수 없기에 일종의 출생 복권이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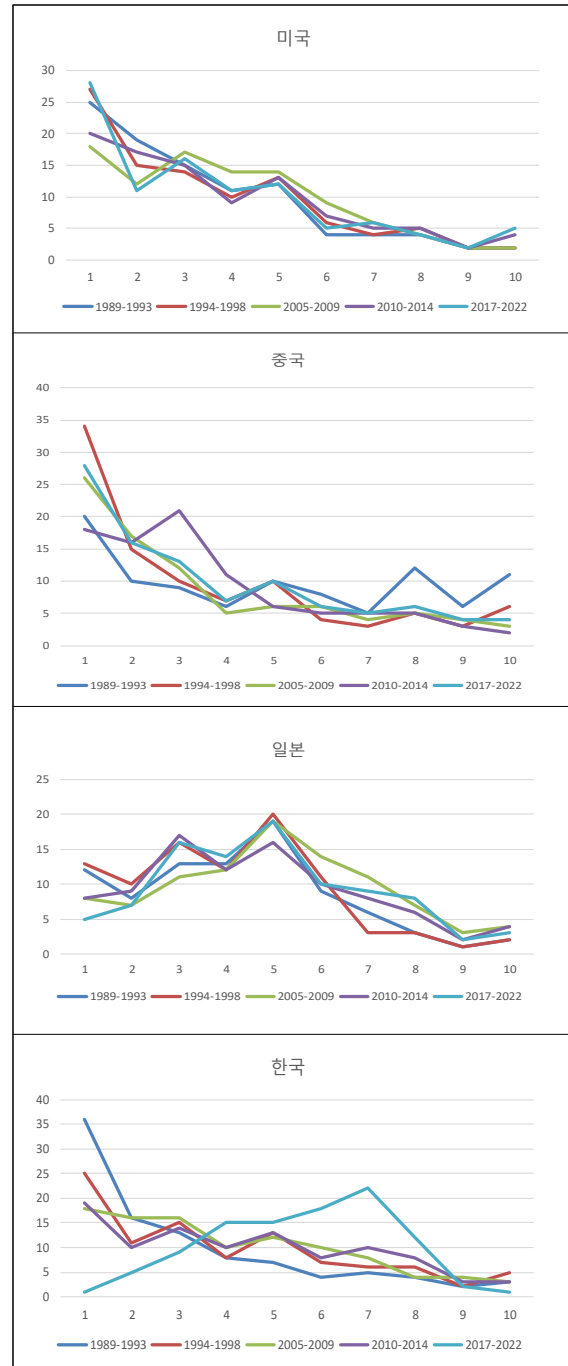
상기 문항은 지금까지 총 5번(1989~1993년, 1994~1998년, 2005~2009년, 2010~2014년, 2017~2022년)의 조사에 포함되었다. 특히 한국에서 수저계급론이 대두된 2015년의 조사(한국은 2018년 1,245명 대상)가 포함되어 사회이동 관련 인식의 악화 여부를 확인이 가능했다.

미국, 중국, 일본과 견주어본 한국 국민의 최근 성공관 변화는 충격적이었다. 미국과 중국은 노력이 운이나 연줄보다 성공에 중요하다는 인식이 줄곧 강했다. 미국인은 조사 시기와 무관하게 거의 일관된 패턴으로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인은 약간의 변동은 있으나 1990년대 후반에 노력의 힘에 대해 매우 강한 믿음을 표출한 이후

최근까지도 운이나 연줄보다는 노력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압도적이다.

한편 일본은 조사 시점마다 중간에 가까운 5점을 가장 많이 선택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양자택일 상황에서 생각을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인의 특성이 일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그림 1] 성공 요인에 관한 인식 비교 (단위: %)



주: 가로축에서 1에 가까울수록 “결국에는 노력이 성공을 가져온다.(In the long run, hard work brings a better life.)”에 동의하고, 10에 가까울수록 “대개 노력이 성공을 가져오지 않는다. 운이나 연줄이 더 중요하다.(Hard work doesn’t generally bring success - it’s more a matter of luck and connections.)”에 동의함을 의미.

자료: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s Survey).

그러나 모든 조사 시기의 응답을 종합하면 노력의 상대적 우위(1~5점) 응답 비율(63%)이 운이나 연줄의 상대적 우위(6~10점) 응답 비율(31%)보다 2배 정도로 크다(무응답이나 ‘알 수 없음’ 선택으로 합계는 100%가 아님).

이런 기준으로 4개국의 모든 조사 시기 응답(노력:운이나 연줄)을 종합한 결과는 미국 78:20, 중국 70:25, 일본 63:31, 한국 67:32였다. 미국이 ‘기회의 땅’이라는 인식이 있었던 미국인, 개혁·개방 후 고도성장에 자극된 중국인뿐 아니라 ‘한강의 기적’과 ‘개천 용 신화’를 경험했던 한국인도 노력의 힘에 대한 상대적인 믿음이 절대 약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조사(한국은 2018년)에서 한국인의 성공관은 바로 그 앞의 조사(한국은 2010년)와 비교하더라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노력의 힘에 대한 강한 믿음은 거의 사라지고 운과 연줄에 기운 모습이 2018년 한국인의 인식이었다. 2015년에 수저계급론이 대두된 이후 확연히 달라진 사회이동에 관한 인식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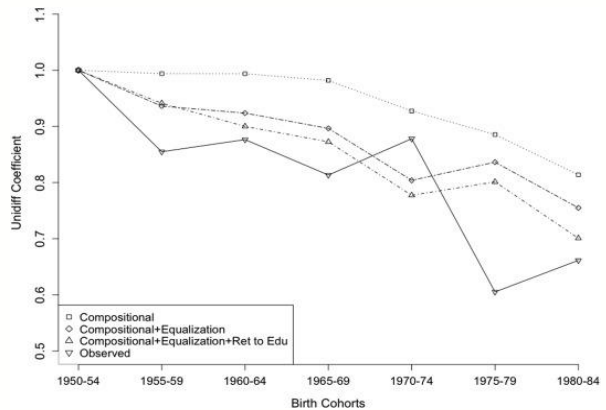
이렇게 2018년 조사에 나타난 한국인의 성공관 변화가 주로 어느 연령대에서 두드러지는지도 살펴보았다. 상대적 우위를 가진 응답 비율로 노력이 운이나 연줄보다 앞선 연령대는 65세 이상이 유일했다(55:45). 다른 연령대, 특히 16~24세와 45~54세는 운이나 연줄의 상대적 우위 비율이 60% 안팎에 달할 정도로 높았다. 진학 및 취업 경쟁을 벌이는 청소년·청년세대와 노동시장 퇴장(통계청 조사에서 주된 일자리 퇴직 평균 나이는

2022년 기준 49.3세) 및 자영업 존폐 위기에 흔히 처하는 세대가 노력의 힘에 대한 믿음보다 운이나 연줄에 기운 성공관을 강하게 보인 것이다. 이 두 세대가 자녀와 부모 관계에 있는 연령대라는 점을 고려하면, 가정 내에서 노력을 통한 성공에 대한 믿음을 복돋는 분위기도 형성되기 힘들었을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2015년 이후 청소년·청년에게 인터넷 담론으로 퍼진 수저계급론이 그 부모 세대에서도 수용되는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이다.

수저계급론에 대한 반박

한편 수저계급론의 부상에도 불구하고 “헬조선과 흡수저는 경제분야의 Fake News에 해당된다”는 비판(한국경제연구원 편, 2018)도 있었다.¹⁾ 또한 한국에서 세대 간 사회이동이 실제로는 저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었다. 일례로 Chung & Park(2019)의 연구는 부모와 자녀 간의 계층 상관성에서 산업 및 직업 구성의 변화에 따른 구조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회의 상대적 분배만을 분석하면 1950~1984년 출생 집단까지 세대 간 사회이동성은 계속 증가해 왔다고 주장했다.²⁾

[그림 2] 출생 코호트별 계층 대물림 비교



자료: Chung & Park (2019)

- 1) 한국경제연구원 편, 『수저계급론에 대한 진단과 정책 제언』, 한국경제연구원, 2018.
- 2) Chung, I. & Park, H., “Educational Expansion and Trends in Intergenerational Social Mobility among Korean Men,” *Social Science Research*, 83, 2019.

그리고 저자들은 [그림 2]에서처럼 세대 간 계층 상관성이 근래의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낮아진 비결을 공교육의 보편화에서 찾았다. 급격한 산업화와 빠른 속도의 공교육 팽창은 교육 기회의 확대를 가져왔고 농민이 대다수였던 부모 세대에 비해 교육받은 자식 세대가 양질의 일자리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세대 간 사회이동을 높였다는 설명이다. 고도성장 에 힘입은 직업구조의 고도화는 세대 내 상대적 계층 지위가 바뀌지 않아도 부모와 자녀 간에 계층 상승이 일어난 것처럼 느끼게 한다. 하지만 성장이 둔화하여 구조적 이동(절대적 이동성)이 줄어들면 순수한 이동 가능성(상대적 이동성 또는 순환적 이동성)에는 변화가 없어도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낮아진 것으로 인식된다는 것이다.

박현준·정인관(2021)의 후속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통해 1998년에 30~49세인 남성(1949~68년생)과 2018년에 30~49세인 남성(1969~88년생)의 부자간 계층이동 수준을 비교함으로써 지난 20년 사이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성의 변화 방향을 고찰하고자 했다.³⁾ 그 결과, 세대 간 사회이동성이 두 시기 모두 높고 계층이동 흐름이 여전히 유동적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저자들은 응답자가 14세 무렵일 때 아버지 직업에 대한 답변을 바탕으로 출신 계급을 정하고 응답자의 현재 직업을 바탕으로 도달 계급을 정했다. 직업은 전문직·관리직을 포함한 서비스직, 사무직·판매서비스업을 포함한 일상적 비육체노동자, 피고용자 유무를 막론한 자영업자, 농업노동자를 포함한 농민, 숙련노동자, 비숙련노동자로 구분했다. 그리고 계급은 서비스직을 상층, 일상적 비육체노동자·자영업자·숙련노동자를 중층, 농민·비숙련노동자를 하층으로 판단했다.

저자들에 따르면, 위와 같은 기준으로 볼 때, 출신 계급과 다른 계급에 도달해 있는 비

율이 1998년 30·40대 남성은 84%, 2018년 30·40대 남성은 82%로서 세대 간 사회이동은 지난 20년간 거의 변하지 않았고, 한국 사회는 여전히 역동적이라는 것이다. 다만 더 높은 계급으로의 세대 간 상승 이동률은 1998년에 58%였으나, 2018년에는 47%로 감소했다. 반면 세대 간의 하강 이동률은 1998년 7%에서 2018년에는 13%로 증가했다. 세대 간의 수평 이동률은 1998년에 19%, 2018년에 21%로 비슷했다. 이처럼 세대 간의 상승 이동이 줄고 하강 이동이 늘어난 이유는 한국 사회의 산업구조 변화로 아버지 직업이 농민이라고 답한 비율이 1998년 59%에서 2018년 26%로 급감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계급의 최하층이던 농민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2018년에는 세대 간 상승 이동을 경험할 가능성이 구조적으로 제한됐다는 것이다.

나아가 저자들은 출신 계급과 도달 계급의 연관성이 1998년에 비해 2018년에 30% 감소해 한국의 세대 간 상대적 사회이동성은 줄어들지 않았고 20년 사이에 증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 사회의 개방성 증대가 계급의 최상층을 차지하는 서비스직의 세습 약화와 일상적 비육체노동자 계급의 세습 약화에 따른 것이라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렇다면 왜 2015년 이후 수저계급론이 확산해 왔을까? 이에 대해서 저자들은 특정 집단의 경험이 미디어를 통해 확대 재생산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만약 그렇다면 수저계급론은 가짜뉴스이거나 적어도 현실보다 부풀려진 인식의 과잉에 의해 과장된 뉴스라고 해야 할 것이다. 물론 저자들은 후속 연구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최종 판단의 여지를 남겼다. 논문 끝부분에 더 정확한 사회이동 흐름을 판단하기 위한 향후 연구과제로서, 계급 구분을 더 정교화하고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 간 사회이동을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1990년대 이후 출생한 사람들(수저계급론의 주된 생산·수용자)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고 덧붙인 것이다.

3) 박현준·정인관, 「20년간의 세대 간 사회이동의 변화: 30-49세 두 남성 코호트 비교 분석」, 『한국사회학』, 55(3), 2021.

1990년대생의 수저계급론에 대한 근거

그 후 민인식(2022)은 기존 연구의 한계를 뛰어넘는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⁴⁾ 이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 조사)부터 최근의 24차(2021년 조사) 자료까지 모두 사용했고, 원 조사 가구에서 분가하여 조사 가구에 추가된 자녀 가구의 자료를 부모 가구의 자료와 매치시켜 총 8,965쌍의 부모·성인 자녀 표본을 얻었다. 저자는 세대 간 사회이동의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 자녀의 출생 코호트를 1979년 이전 출생자, 1980~1989년 출생자, 1990년 이후 출생자로 구분했는데, 부모와 매칭된 자녀 수가 각각 2,651명, 2,996명, 3,318명으로서 1990년 이후 출생자를 포함해 모든 출생 코호트에서 분석에 충분한 관측치를 확보했다. 가장 최근 코호트가 1984년 생까지였던 선행연구의 한계를 일단 뛰어넘은 셈이다. 또한 부모와 자녀 모두 응답자 본인이 보고한 교육 수준과 소득을 분석 변수로 사용한 점도 장점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세대 간 사회이동의 판단에 있어서 직업군을 기준으로 한 계급 변수를 사용하면서 성인 자녀의 14세 무렵 아버지 직업에 대한 회고적 응답에 의존했는데, 이에 따른 계층 판단의 부정확성 및 소득 이동성 분석의 부재라는 한계도 극복한 것이다.

저자는 최종 학력을 기준으로 자녀의 출생 코호트별 교육 이동성 추이부터 분석했다. 그 결과 1979년 이전생보다 1980년대생의 세대 간 교육 이동성은 상승했으나 1980년대생에 비해 1990년 이후 출생자의 세대 간 교육 이동성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령 부모 학력이 고졸일 때 자녀 학력도 고졸인 비율이 1979년 이전 출생자는 24%였고, 1980년대 출생자는 12%로 하락했으나, 1990년 이후 출생자는 17%로 반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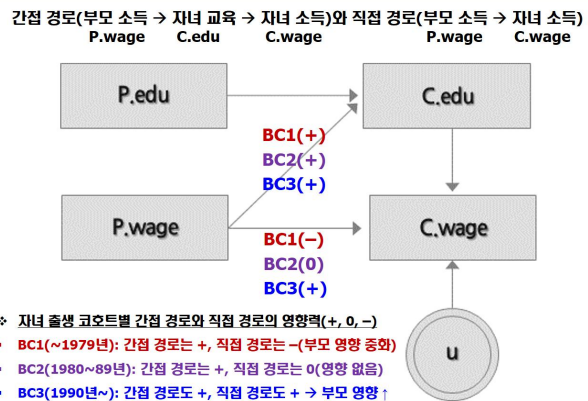
다음으로 저자는 부모와 성인 자녀의 소득을 기준으로 세대 간 소득 이동성과 상관성을

측정하고, 이를 세 출생 코호트 간에 비교했다. 자녀 소득이 부모 소득에서 얼마나 벗어나는지를 측정하는 소득 이동성 지수로서 평균 대비 소득으로 부모·자녀 간 차이를 계산하는 지수를 사용하면, 세 출생 코호트는 각각 0.60, 0.51, 0.48로 추정되어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이 낮아졌다. 소득 랭킹으로 부모·자녀 간 차이를 계산하는 소득 이동성 지수를 사용하면 각각 0.17, 0.13, 0.13으로 추정되어 1980년대생 이후부터 소득 이동성이 하락했다.

한편 소득계층 대물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세대 간 소득 탄력성과 세대 간 소득 상관계수를 세 출생 코호트 간에 비교한 결과 최근 출생 코호트로 올수록 소득 대물림이 강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세 출생 코호트에서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은 각각 0.037, 0.063, 0.102로 점점 커진 것으로 추정됐고, 세대 간 소득 상관계수 역시 각각 0.046, 0.085, 0.153으로 점점 커진 것으로 계산됐다.

이처럼 1979년 이전 출생자, 1980년대 출생자, 1990년 이후 출생자로 올수록 부모 소득과 자녀 소득의 상관성 또는 세대 간 소득 대물림이 강해진 이유는 무엇일까? 민인식(2022)은 이 질문에 대해 부모 소득이 자녀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경로의 구조방정식 분석을 통해 답하고 있다.

[그림 3] 소득의 세대 간 영향 경로



자료: 민인식(2022)의 분석 결과를 요약함.

4) 민인식, 「사회이동성과 교육혁신의 필요성」, 『교육혁신과 인적자본형성에 관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22.

[그림 3]에서처럼 부모 소득은 자녀 교육에 대한 투자 재원이 되고, 자녀가 받은 교육이 노동시장 수익, 즉 임금으로 나타나 자녀 소득을 높이게 되는 간접 경로를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부모 소득이 자녀 교육을 통하지 않고 자녀에 대한 생계비·사업비 지원이나 현금 증여와 같은 직접 경로, 즉 직접적인 사적 소득 이전을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접 경로의 경우 순소득 이전의 방향이 반대일 수도 있는데, 이는 성인 자녀가 부모에게 노후 생계비나 용돈 지원 등 소득 이전을 한 금액이 부모에게서 받은 금액보다 더 클 때이다. 민인식(2022)은 세 출생 코호트에서 자녀 교육을 통한 소득이동의 간접 경로가 모두 양(+)의 값을 갖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 사회에서 자녀 교육이 소득계층 대물림의 통로가 되는 구조는 계속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부모 소득이 직접적인 소득 이전을 통해 자녀 소득에 영향을 주는 직접 경로는 세 출생 코호트에서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먼저 1979년 이전 출생자는 직접 경로가 오히려 음(-)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성인 자녀에게서 노부모에게로 순소득 이전이 일어났음을 의미하는데, 그 세대에서는 부모가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등 주로 교육투자 형태로 지원하고, 나중에 자녀가 노부모에게 용돈을 드리는 경우가 흔했던 모습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결과적으로 1979년 이전 출생자에게서는 간접 경로의 (+)효과가 직접 경로의 (-)효과에 일부 상쇄되어 부모 소득이 자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중화한 것이다. 이 점 때문에 세대 간 소득 탄력성이나 세대 간 소득 상관계수가 이 출생 코호트에게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1980년대 출생자는 직접 경로를 통한 부모 소득의 영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되었다. 부모와 자녀 간에 사적 소득 이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서로 준 금액과 받은 금액이 균형을 이루어 순소득 이전이 0에 가까

웠던 것으로 볼 수 있다.

끝으로 1990년 이후 출생자는 직접 경로를 통한 부모 소득의 영향도 양(+)의 값으로 추정되었다. 이는 1990년대생과 같이 젊은 자녀 세대에서 자녀 소득에 대한 부모 소득의 영향력이 교육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지원에 그치지 않고 증여와 같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서도 행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비로소 왜 1990년 이후 출생자에게서 부모로부터의 소득 대물림이 앞 세대보다 강하게 나타났는지를 설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왜 수저계급론이 이들이 20대 무렵이었을 2015년부터 등장하여 청년층의 공감을 사며 최근까지 퍼져나갔는지도 짐작하게 해준다.

15년 전 예상과 현실

한국의 세대 간 소득 이동성에 관한 최초의 실증분석은 2008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에서 초고를 발표한 김희삼(2009)의 연구였다.⁵⁾ 이 연구를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KDI 정책포럼으로 간추린 자료의 요약에는 한국의 세대 간 사회이동에 대해 양호한 현황과 우려되는 전망이 함께 포함되어 있었다.

세대 간 사회이동이 활발했던 시기는 수저계급론을 반박한 근간의 사회학 연구에서 설명한 내용과도 궤를 같이한다. 김희삼(2009)의 연구에서 한국노동패널 1차(1998년)~10차(2007년) 자료의 원 가구와 분가 가구 매칭을 통해 구축한 아버지와 아들의 소득 자료에서 아들 세대의 평균 출생 연도가 1973년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국의 사회이동이 아직 활발했던 때의 자료 분석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그 연구 당시에도 향후 한국노동패널 자료가 더 성숙하여 훨씬 더 늦게 태어난 자녀 세대까지 소득을 관찰할 수 있는 시

5) 김희삼, 『한국의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 분석』, 한국개발연구원, 2009.

기가 오면 세대 간 소득 탄력성, 즉 경제력 대물림이 높아질 수 있음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런데 2009년 보고서에서 향후 세대 간 경제적 이동성이 하락할 우려를 표명하면서 거시경제적·구조적 요인으로 인한 절대적 이동 기회의 감소, 사교육시장의 심화와 함께 언급한 내용이 있다. 바로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의 급등으로 물적자본의 직접적인 증여나 상속을 통한 경제적 대물림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었다. 이 전망은 코로나19 기간의 초저금리와 유동성 과잉 등으로 급등한 주택 가격, 그리고 늘어난 증여 등으로 현실이 되었다. 슬픈 예감은 현실이 된다는 말이 이 경우에는 사실이었던 셈이다. **SIES**

| 약력 |

현 광주과학기술원(GIST) 교수.
서울대 경제학과 학사 및 석사, 미국 위스콘신대 경제학 박사.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및 인적자원정책 연구부장 역임.